

구로병원 2022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2022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가(이하 산안위) 12월 28일(수) 오후 4시 앰병원 3층 심학기룸에서 진행됐다.

산안위는 노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회의는 노사대표 인사말로 시작됐다. 곧이어 노동조합이 요청한 자료를 점검하고, 안전 논의 및 현안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이로써 2022년 모든 산안위의 일정이 종료됐다.

이번 산안위는 본회의 시작 전 2차례의 사전회의를 거쳐 진행됐다.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안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요지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본회의에서는 안전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다.

정희진 병원장,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산안위이니 만큼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



사측 대표위원인 정희진 병원장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 저 스스로는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고충도 알게 되고 개선할 것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산안위도 항상 하지는 취지로 만나고 있는데,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지는 목적이니까 오늘도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 고대의료원 직원의 행복을 위한 총장 선거권 확보 투쟁 진행할 것.

노재옥 지부장은 “인증평가 치르느라 고생하셨다. 인증단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조사위원 중에 개인적인 질문이나 너무 뻑뻑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명단을 제출해서 인증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이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의료원 교직원 참정권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학교는 교직원이 400명인데 비해 의료원은 교직원이 5,000명이다. 직원수도 차이가 나고 의료원의 수익과 미래 방향성 등을 보았을 때 총장과 의료원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후보들에게 의견서를 보냈다. 두 후보에게 답변이 왔는데 동의하는 의견이었다. 고려대의료원 교직원의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인데 병원장님도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는 말도 전했다.

한편, 노재옥 지부장은 산안위 위원인 신정호 기획실장의 불참 소식에 유감을 전했다.

▲ 폭언 예방을 위한 녹음방법 쓰인 스티커 제작 및 배포 시행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긍정적 신호

산안위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전화 통화 시 폭언을 예방하고자 사전 예방 안내 멘트 삽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폭언을 당했을 시 녹음이 가능하도록 서버 구축이 완료되어 부서에서 폭언을 당했을 경우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방법이 쓰여진 스티커를 배포했다. 더욱이 사내 명예

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필요성을 노사가 공히 공감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직원 안전을 위한 노력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산안위에서 직원들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023년은 더욱 더 직원들을 위한 노동환경을 생각하는 노사가 되길 바란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 및 결과 >

안건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침상커튼 탈부착 전문 인력 배치 요청 건】 병동, 중환자실, 항암치료실 등 환자용 침상 커튼 탈부착 시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지난 3/4분기 산안위 안건이었고 진행사항이 어떤가?	3개 병원 현황조사 완료했으며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건】 ① 간호사 간편복 세탁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자. ② 효율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용 간편복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안건이다. 세탁은 3개 병원 통일되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② 개인 간편복과 공용 간편복의 요구도 파악이 필요하고 3개 병원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하므로 산안위보다는 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건 없다. 정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원과 의견을 조율해 진행사항을 답변하겠다. 실무회의에서 재논의하도록 하자.
	【환경관리실 1인 근무 금지의 건】 구로병원 환경관리실은 2인 근무였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 1.5의 T/0로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인 근무가 필요하다.	전담인력은 충족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파악했을 때 2인이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부족하다. 2인 근무 시 위험성 작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게 시설팀 내부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다. 일이 많아지면 다시 검토하겠다. 1인이 근무하다가 위험할 경우의 알릴 수 있게 비상벨 설치의 현재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증상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를 3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에 맞게 사후관리 프로그램 진행하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자. 2단계는 어울림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된다. 3단계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자.	‘소위원회’라는 형식에서 ‘실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최 시기와 구성위원에 대해 실무적으로 재논의한 후 진행하도록 하자.